



# 전 세계 감염병 발생 동향

## Global Infectious Disease Outbreak Update

### 요약

#### 1. 웨스트나일열, 스페인 West Nile fever in Spain

'26년 7월 스페인 안달루시아 세비야에서 웨스트나일열 환자 4명 발생, 안달루시아 12개 지방자치단체를 웨스트나일열 순환 경보지역으로 지정

- '26년 7월 24일 기준, 스페인 안달루시아 자치주 내 세비야에서 웨스트나일열 환자 4명이 확진됨. 현재 특별감시지역 및 경보지역 주민·방문객의 증상자를 대상으로 한 인체감시(경증 인체감시 262명, 바이러스성 뇌수막염 환자 감시 100명, 헌혈자 688명)에서 추가 확진자는 확인되지 않음
- 스페인 안달루시아 보건당국은 웨스트나일열 확산 경보지역을 지정하고 인체감염 및 감염 모기 확인지역에서 최소 4주간 사람·모기·동물 감시와 주민 대상 위험소통을 강화하며, 확인된 유충 발생 지점 또는 성충 서식지로 확인된 지점의 반경 1.5km 이내에서 지자체 모기 방제계획을 수행 중임
- WHO는 일반대중의 감염위험은 낮은 수준이나 감염자 중 일부는 중추신경계를 손상시키는 중증 감염으로 진행할 수 있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고 밝힘. 또한 기온 상승과 여름철 장기화로 모기 활동기간과 분포지역이 확대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예방을 위해 긴소매·긴바지 착용, 모기기피제 사용, 방충망 설치 및 고인 물 제거 등을 권고함
- 국내에서는 '12년 웨스트나일열 해외 유입 사례 최초 보고 이후 현재까지 국내 발생은 없음. '26년 3월 이후 전국 274개 지점에서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등 유관 부처 및 민간(기후변화 거점센터)과 협력하여 매개모기 감시를 수행 중임. 모기 매개 감염병 발생국 여행 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모기 예방 물품 준비, 모기 기피제 사용 등 모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할 것을 권고함

## 2. 뎡기열, 전 세계 Dengue Fever in Multi-country

'26년 상반기 전 세계 89개국에서 뎡기열 160만여 명(사망 700여 명) 발생, 대륙별 아메리카 최다 발생(81%), 브라질, 인도네시아, 콜롬비아 순으로 발생

- WHO에 따르면, '26년 1~6월 전 세계 89개 국가·지역에서 약 160만 명(사망 700명 이상)이 보고되었으며, 이 중 81%(130만 명 이상)가 아메리카 지역에서 발생함
- 국가별로는 브라질이 106만여 명(확진 27만여 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인도네시아·콜롬비아 순임
- 전 세계적으로는 사상 최고치였던 '24년(1,420만 명)·'25년보다 적으나, 18개국은 '24년 동기간 누적을 초과하였고 특히 캄보디아·케냐·이란은 최근 몇 년 중 최대 규모를 기록함
- 국내 뎡기열은 모두 해외유입 사례로 '26년 31명(7.30. 기준)이 보고됨. 매개 흰줄숲모기가 전국에 서식하므로 유행지역 방문 시 모기 물림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여행 후 발열 등 의심증상 시 해외 여행력을 알리고 진료받을 것을 권고함

## 3. 선모충증, 아르헨티나 Trichinellosis in Argentina

'26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주 북서부 지역 선모충증(Trichinellosis) 집단 발생으로 보건 경보 발령

- '26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주 북서부 지역(Junín 및 Lincoln)에서 두 건의 선모충증 집단 발생이 확인되어 주 보건당국이 보건 경보를 발령함
  - 특히 '26년 남반구 겨울철(6~8월) 들어 해당 주에서만 124건의 확진 사례가 보고되었으며, 이는 '25년 동 기간(37건)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수치임. 두 개 집단 발생을 합한 환자 수는 '26년 7월 24일 기준 55명 이상임
- 아르헨티나 보건당국은 두 지역 집단 발생 간 역학적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함. 다만, 두 지역의 사례 모두 라벨이 없어 산지 추적 및 위생 관리를 할 수 없는 돼지고기 가공품이 유통·섭취된 점을 공통 위험 요인으로 파악함
- 국내는 '14년 자라 고기 생식과 관련한 선모충증 집단 발생 이후 현재까지 추가 발생 사례가 보고된 바 없음 ('26.7.30. 기준). 선모충증 예방을 위해 원산지가 확인된 육류만 섭취하고, 선모충 유충은 염장·건조·훈연만으로 사멸되지 않으므로 육류를 중심부까지 70℃ 이상(분쇄육 71℃)으로 충분히 가열해 조리할 것을 당부함. 또한 생고기 취급 후에는 손과 조리기구를 철저히 세척하는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권고함
- 아르헨티나 등 발생국 방문 시 노점 및 비공식 유통망에서 판매되는 수제 육가공품(살라미, 초리조, 본디올라 등) 섭취를 자제하고, 귀국 후 발열·근육통·안면부종 등이 나타나면 의료기관을 방문해 여행력을 알리고 치료받을 것을 권고함

## 1. 웨스트나일열, 스페인 West Nile fever in Spain

### 발생 상황

- '26년 7월 24일 기준, 스페인 안달루시아 자치주 내 세비아에서 웨스트나일열 환자 4명이 확진됨. 특별감시지역 및 경보지역 주민·방문객의 증상자를 대상으로 한 인체감시(경증 인체감시 262명, 바이러스성 뇌수막염 환자 감시 100명, 헌혈자 688명)에서 추가 확진자는 확인되지 않음
- ECDC에 따르면 '26년 7월 22일 기준 유럽 6개국 35개 지역에서 총 81명의 지역사회 내 웨스트나일열 인체감염 사례가 보고됨

- '26년 7월 24일 기준, 스페인 안달루시아 자치주 내 세비아에서 웨스트나일열 환자 4명이 확진됨<sup>1)2)</sup>
  - 세비아에서는 이번 전파시즌(주로 6월~11월) 동안 4명의 경증 웨스트나일열 환자가 확인됨. 첫 번째 환자는 팔로마레스 델 리오(Palomares del Rio) 거주자이며, 추가적인 임상·역학정보는 공개되지 않음. 두 번째 환자는 비야만리케 데 라 콘데사(Villamanrique de la Condesa) 거주 남성으로 7월 13일 증상이 시작되어 7월 21일 세비아 비르헨 델 로시오 대학병원에서 PCR검사로 확진됨<sup>1)</sup>. 세 번째 및 네 번째 환자는 여성이며 모두 세비아의 라 푸에블라 델 리오 주민으로 각각 7월 19일과 20일에 첫 증상을 보였고, 7월 23일 비르헨 델 로시오 대학병원에서 PCR검사를 통해 확진됨<sup>2)</sup>
  - 안달루시아 보건당국은 특별감시지역 및 경보지역 주민·방문객의 증상자를 대상으로 한 인체감시(경증 인체감시, 바이러스성 뇌수막염 환자 감시, 헌혈자 선별검사) 및 동물감시(말·조류 등 대상) 체계를 운영 중임. 보고서에 따르면 경증 인체감시 대상 262명, 바이러스성 뇌수막염 환자 100명, 헌혈자 688명에 대한 검사에서 추가 확진자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말 및 야생조류(208마리) 감시에서는 웨스트나일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음<sup>2)</sup>
  - 매개체 감시에서는 모기 밀도가 높은 기간이 시작된 이후 206개 트랩, 3,216건 검사에서 다수 지자체의 모기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었고, 최근 매개모기(암컷) 밀도의 점진적 증가가 관찰되고 있어 추가 인체 감염 발생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sup>2)</sup>
  - 세비아 확진자 4명을 포함하여 '26년 스페인에서는 총 5명의 지역사회 웨스트나일열 인체감염 사례가 보고됨(7.24.기준). 세비아주 발생 이전 확진자는 발렌시아 자치주 알리칸테에서 확인된 53세 남성으로 6월 30일 증상이 발현되어 7월 1일 PCR검사로 확진되었음. 알리칸테는 '25년 처음으로 지역사회 인체감염이 보고된 지역으로, 환자는 며칠간 입원한 뒤 퇴원한 것으로 보도되었으며, 구체적인 증상 및 신경침습성 질환 여부, 감염 추정지역 등은 공개되지 않음<sup>3)</sup>
- '25년 스페인에서는 한 해 동안(유럽 전체 발병일 기준 5.19.~10.27.) 지역사회 내 인체감염 36명, 말 12건, 조류 4건이 보도됨<sup>4)5)</sup>. 알리칸테와 알메리아는 처음으로 지역사회 내 인체감염 사례가 보고된 지역에 포함됨<sup>4)</sup>
- 한편, ECDC에 따르면 '26년 7월 22일 기준 유럽 6개국 35개 지역에서 총 81명의 지역사회 내 웨스트나일열 인체감염 사례가 보고됨<sup>6)</sup>
  - 국가별로는 이탈리아 46명, 그리스 21명, 북마케도니아·루마니아 각각 5명, 스페인 3명, 프랑스 1명으로 확인됨. 이탈리아가 전체 사례의 56.8%를 차지했으며, 이탈리아와 그리스 사례(67명)가 전체의 82.7%에 해당됨<sup>6)</sup>

- 영향받은 지역은 이탈리아 20개, 그리스 6개, 루마니아 4개, 북마케도니아·스페인 각각 2개, 프랑스 1개 지역임. 이 중 새롭게 영향받은 지역으로 추가된 지역은 이탈리아의 볼로냐(Bologna), 카세르타(Caserta), 페라라(Ferrara), 마테라(Matera), 모데나(Modena), 그리스의 라리사(Larisa), 펠라(Pella), 루마니아의 돌지(Dolj), 프랑스의 부슈뒤론(Bouches-du-Rhone) 등 총 9개 지역임<sup>6)</sup>
- 이들 국가 중 그리스에서는 7월 22일까지 21명(직전 1주 신규환자 14명 발생)의 인체감염 사례가 보고되었으며, 이 중 20명이 뇌염 및 수막염을 포함한 신경침습성 질환을 보였고, 13명은 현재 입원 중임. WHO 유럽지역 사무소에 따르면, 그리스에서 최근 가장 가파른 증가세가 나타났다고 언급하였으며, 이탈리아는 7월 15일 현재 17개 지역에서 21명의 환자가 확인되어 지리적으로 가장 넓게 퍼져 있음<sup>7)</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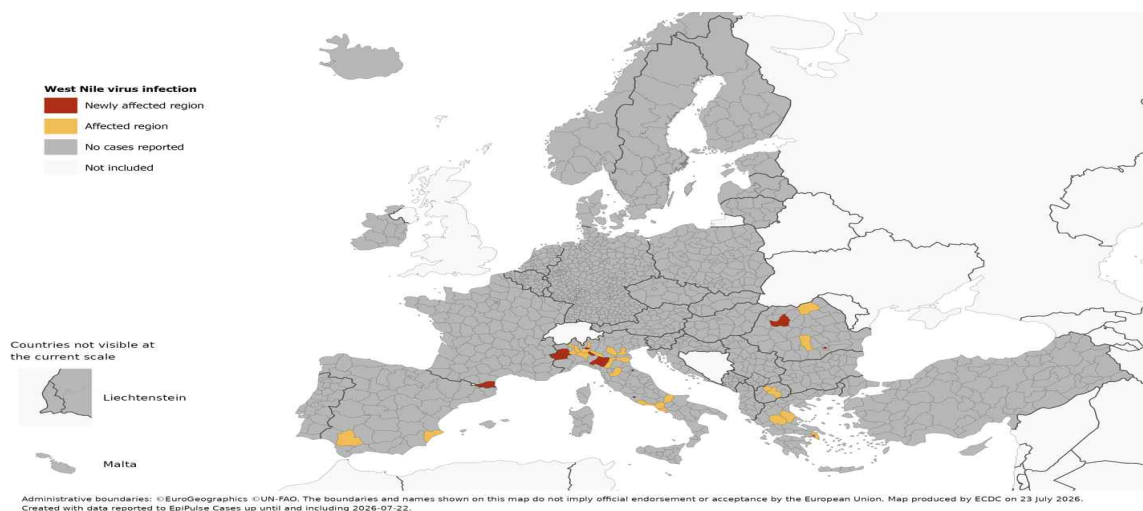


그림 1-1. '26년 유럽 내 웨스트나일열 전파기간동안 영향을 받은 지역의 지리적 분포<sup>6)</sup> (ECDC, '26.7.22.기준)

- 한편, '25년 유럽에서는 전파시즌 전체에 걸쳐 14개국에서 인체감염 사례 1,112명(사망 97명)이 보고됨. 국가별로는 이탈리아 779명, 그리스 96명, 프랑스·세르비아 각각 62명, 루마니아 49명, 스페인 36명 순으로 많이 발생함. 65세 이상 남성이 다수였으며 입원율 84%, 치명률 9%, 신경 침습성 증상 비율 56%로 감시체계 특성상 중증 환자가 우선 포착되는 경향이 있음<sup>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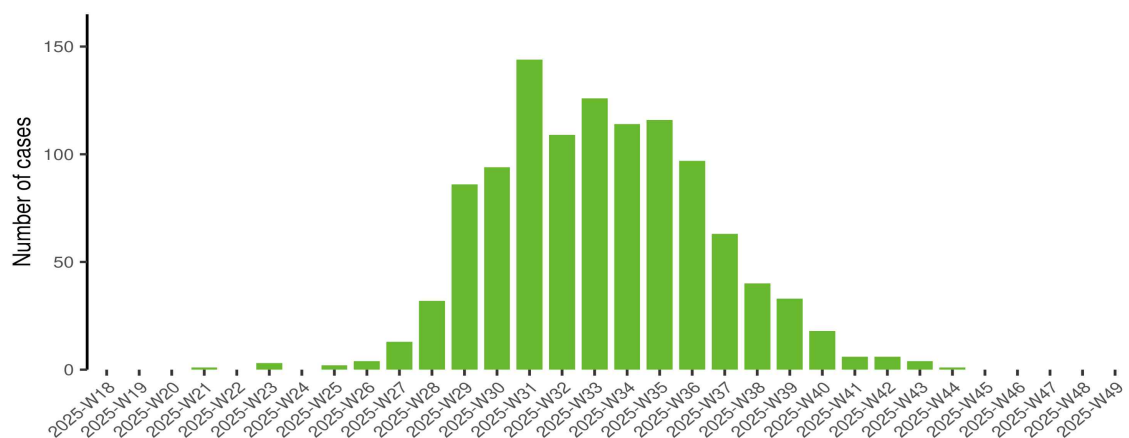


그림 1-2. '25년 유럽 내 웨스트나일열 환자 발생현황<sup>4)</sup> (ECDC, '25.12.3.기준)

※ '26년 자료는 7월 22일까지의 누적 발생이며, 반면 '25년 자료는 전파시즌 전체 발생이므로 두 기간의 발생 규모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려움

## 상황 평가

- 스페인 안달루시아 보건당국은 웨스트나일열 확산 경보지역으로 지정하고 인체감염 및 감염 모기 확인 지역에서 최소 4주간 사람·모기·동물 감시와 주민 대상 위험소통을 강화하며, 확인된 유충 발생 지점 또는 성충 서식지로 확인된 지점의 반경 1.5km이내에서 지자체 모기 방제계획을 수행 중임
  - ECDC는 지역사회 내 인체감염 지역을 모니터링 중이며, 드물게 수혈이나 장기이식을 통해 전파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혈액·조직·장기 등 인체유래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해 정보를 제공 중임
  - WHO는 일반대중의 감염위험은 낮은 수준이나 감염자 중 일부는 중추신경계를 손상시키는 중증 감염으로 진행할 수 있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고 밝힘. 또한 기온 상승과 여름철 장기화로 모기 활동기간과 분포지역이 확대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예방을 위해 긴소매·긴바지 착용, 모기기피제 사용, 방충망 설치 및 고인 물 제거 등을 권고함
- 국내에서는 '12년 웨스트나일열 해외 유입 사례 최초 보고 이후 현재까지 국내 발생은 없음. '26년 현재 전국 274개 지점에서 유관부처 및 민간과 협력하여 매개모기 감시사업을 수행 중임. 모기 매개 감염병 발생국 여행 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모기 예방 물품 준비, 모기 기피제 사용 등 모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할 것을 권고함

- 스페인 안달루시아 보건당국은 인체감염 및 감염모기 확인결과에 따라 세비아의 알멘시아, 아스날카사르, 겔베스, 마이레나 델 알하라페 지역을 포함하여 알메리아주의 풀피(Pulpi), 하엔주의 토레돈히메노(Torredonjimeno), 그라나다주의 살로브레냐(Salobrena), 세비아주의 9개 지방자치단체(알멘시아, 아스날카사르 등)를 포함하여 총 12개 지방자치단체를 웨스트나일바이러스 순환 경보지역으로 지정함<sup>2)</sup>. 경보지역 지정 후 인체 감염 및 감염 모기 확인지역에서 최소 4주간(세비아 해당 지자체 8.17.까지 연장, 살로브레냐 8.20.까지) 또는 동 기간 중 환자 발생과 모기·조류·말에서의 바이러스 검출이 없을 때까지 유지됨. 사람·모기·동물 감시와 주민 대상 위험소통을 강화하고, 확인된 유충 발생 지점 또는 성충 서식지로 확인된 지점의 반경 1.5km이내에서 지자체 모기 방제 계획을 시행함<sup>8)</sup>
  - 예방을 위해 국소 모기퇴치제 사용, 긴소매·긴바지·밝은 색 옷 착용, 강한 냄새(향수 등)를 피할 것을 강조하였으며, 모기장 설치, 가정용 살충제, 불필요한 조명 소등 등 가정 내 예방조치를 강화할 것을 권고함. 또한 모기 유충 번식을 막기 위해 고인 물이 생기지 않도록 수영장 등 관리를 언급함<sup>8)</sup>
- ECDC는 지역사회 내 인체감염 발생상황 및 지역 정보를 매주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정보는 인체감염의 지리적 확산뿐 아니라, 웨스트나일열이 드물게 수혈이나 장기이식을 통해 전파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혈액·조직·장기 등 인체유래물질의 안전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제공함<sup>6)</sup>
- WHO는 일반대중의 감염위험은 낮은 수준이나, 감염자 약 150명 중 1명은 중추신경계를 침범하는 중증 감염으로 진행할 수 있어 모기에 물린 후 고열, 발진, 목 경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도록 권고함. 또한 유럽 일부 지역(그리스, 이탈리아)에서 웨스트나일열 감염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기온 상승과 여름철 장기화가 모기의 활동기간과 분포지역을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예방을 위해 ▲긴소매·긴바지 착용, ▲모기기피제 사용, ▲방충망 설치 및 고인 물 제거 등을 권고함

- 국내에서는 '12년 웨스트나일열 해외 유입 사례 최초 보고 이후 현재까지 국내 발생은 없음.<sup>9)</sup> '26년 3월 이후 전국 274개 지점에서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등 유관 부처 및 민간(기후변화 거점센터)과 협력하여 매개모기 감시\*를 수행 중임<sup>10)</sup>. 모기 매개 감염병 발생국 여행 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모기 예방 물품 준비, 모기 기피제 사용 등 모기 매개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할 것을 권고함<sup>11)</sup>

\* (감시사업종류 및 일정) ▲일본뇌염 매개모기 감시(3~10월), ▲검역구역 내 감염병 매개체 감시(3~10월), ▲말라리아 매개모기 감시(4~10월), ▲권역별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4~10월)



| 질병개요      | 웨스트나일열                                                                                                                                                                                                                             | 〈West Nile fever〉 <sup>11)</sup> |
|-----------|------------------------------------------------------------------------------------------------------------------------------------------------------------------------------------------------------------------------------------|----------------------------------|
| 정의        | · 웨스트나일 바이러스(West Nile virus) 감염에 의한 질환. 제3급 감염병                                                                                                                                                                                   |                                  |
| 병원체       | · 웨스트나일 바이러스(West Nile virus) - <i>Flaviviridae</i> 과 <i>Orthoflavivirus</i> 속                                                                                                                                                     |                                  |
| 병원소       | · 모기<br>· 조류(까마귀, 까치, 어치, 참새목 등)                                                                                                                                                                                                   |                                  |
| 매개체       | · 주로 집모기류( <i>Culex</i> spp.)<br>- 빨간집모기군( <i>Culex pipiens</i> complex) 등                                                                                                                                                         |                                  |
| 전파경로      | · 웨스트나일 바이러스에 감염된 매개모기에 물려 전파<br>· 혈액을 통한 전파(수혈감염, 장기이식, 주사바늘 찔림 사고 등)<br>· 사람 간 직접 전파는 발생하지 않음                                                                                                                                    |                                  |
| 잠복기       | · 2~14일(일반적으로 2~6일)                                                                                                                                                                                                                |                                  |
| 임상증상      | · 감염된 사람들의 70~80%는 무증상임<br>· 신경계 비침습 질환(Non-neuroinvasive disease): 발열, 오한, 주로 허약감, 두통, 식욕감퇴, 근육통, 구역, 구토, 발진, 림프절병증, 안구통 등<br>· 신경계 침습 질환(Neuroinvasive disease): 수막염, 뇌염, 급성이완마비(acute flaccid paralysis) 또는 급성의 중추 혹은 말초 신경계 이상 |                                  |
| 치명률       | · 신경계 감염을 일으킨 경우는 약 10%                                                                                                                                                                                                            |                                  |
| 진단        | · 확인진단<br>- 검체(혈액, 뇌척수액, 조직)에서 West Nile virus 분리<br>- 회복기 혈청의 항체가가 급성기에 비하여 4배 이상 증가<br>- 검체(혈액, 뇌척수액, 조직)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br>· 추정진단<br>- 검체(혈액, 뇌척수액)에서 특이 IgM 항체 검출                                                                 |                                  |
| 치료        | · 보존적 치료                                                                                                                                                                                                                           |                                  |
| 환자·접촉자 관리 | · 환자관리: 수혈, 장기이식, 출산, 모유수유 등 전파 가능성에 대한 주의<br>· 접촉자 관리: 필요없음                                                                                                                                                                       |                                  |
| 예방        | ·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가장 주요<br>·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되는 조류 취급 시 개인보호장비를 반드시 착용<br>· 예방접종: 없음<br>· 웨스트나일열 환자 및 병력자의 경우 증상 발현 또는 진단 후 6개월간 헌혈 금지                                                                                              |                                  |

1) La Junta de Andalucía confirma en Sevilla el segundo caso en humanos del virus del Nilo 안달루시아 지방 정부는 세비아에서 두 번째 웨스트나일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발생했음을 확인 (20minutos, '26.7.22.)

2) Sanidad confirma dos casos leves de fiebre del Nilo occidental en humanos en La Puebla del Río 보건 당국은 라 푸에블라 델 리오에서 사람에게서 웨스트나일열 경증 사례 2건이 발생 (안달루시아 주정부, '26.7.24.)

3) Diagnosticado en Alicante el primer caso de fiebre del Nilo occidental del verano en España 스페인에서 여름철 첫 웨스트나일열 환자가 알리칸테에서 발생 (EL PAIS, '26.7.10.)

4) Surveillance of West Nile virus infections in humans and animals in Europe, monthly report (ECDC, '25.12.10.)

5) Historical data on local transmission in Europe for West Nile virus (ECDC, '26.7.27.확인)

6) Weekly overview of areas affected by West Nile virus in Europe, based on reported human cases (ECDC, '26.7.23.)

7) West Nile virus: as cases rise across parts of Europe, here is what you need to know (WHO, '26.7.24.)

8) Sanidad declara áreas en alerta por virus del Nilo occidental Gelves, Almensilla, Aznalcázar y Mairena del Aljarafe 보건당국은 겔베스, 알멘시야, 아스날카사르, 마이레나 델 알하라페 지역을 웨스트나일열 경보 지역으로 지정 (안달루시아 주정부, '26.7.17.)

9) 감염병 포털: 전수감시 3급 웨스트나일열 (질병관리청, '26.7.28.기준)

10) 보도자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 매개체 감시체계 가동 (질병관리청, '26.3.15.)

11) 2026년 바이러스성 모기매개감염병 관리지침 (질병관리청, '26.3.12)

## 2. 뎅기열, 전 세계 Dengue Fever in Multi-country

### 발생 상황

- WHO는 '26년 6월 말 기준 전 세계 뎅기열 발생 동향을 발표함. '26년 상반기(1~6월) 전 세계 89개 국가·지역에서 약 160만 명(사망 700명 이상)이 보고되었음. 대륙별로 아메리카, 서태평양, 동남아시아 순으로, 국가별로는 브라질, 인도네시아, 콜롬비아 순으로 발생함
- 아프리카·동지중해·동남아시아·서태평양 지역은 통상 하반기에 유행 정점이 도래하여 '26년 정점은 아직 보고되지 않음
- ※ 다만 지역별 감시체계가 상이하여 권역 간 단순 비교에는 주의 필요

- '26년 1월부터 6월까지 89개 국가, 영토 및 지역에서 약 160만 건의 확진 사례와 7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보고되었으며, 이 중 대다수(81%)는 130만건 이상의 확진 사례가 보고된 미주 지역에서 발생함. 계절적 양상 또한 지역마다 다르며, 아프리카, 동지중해, 동남아시아 및 서태평양 지역은 일반적으로 연도 후반에 유행이 정점에 달하므로 '26년 최고 확진자수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음<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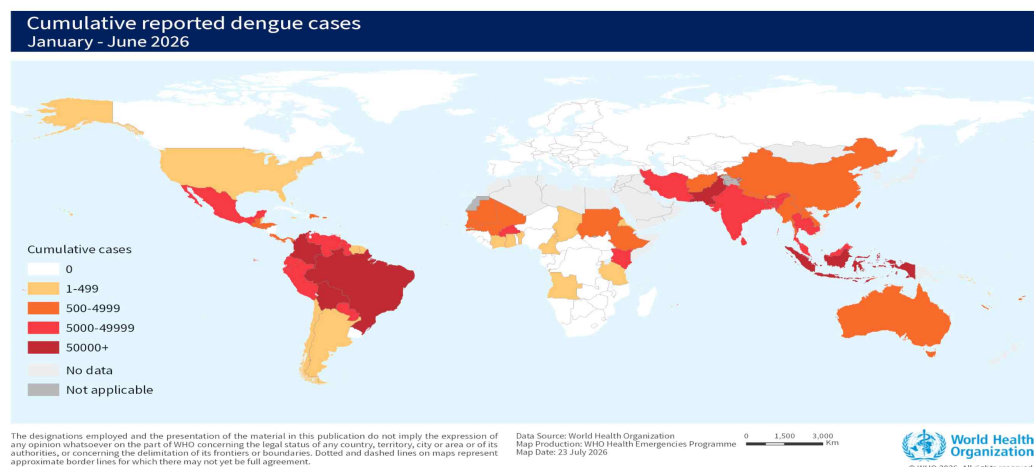


그림 2-1. '26년 1월~6월 전 세계 총 확진 사례의 지역별 분포 (WHO, '26.7.23.)<sup>1)</sup>

표 2-1. '26년 1월~6월 WHO 지역별 뎅기열 발생현황 (WHO, '26.7.23.)<sup>1)</sup>

(단위 : 명)

| WHO 지역 | 의심 사례     | 확진 사례   | 사망  |
|--------|-----------|---------|-----|
| 아프리카   | 35,740    | 5,443   | 52  |
| 동지중해   | 16,833    | 3,965   | 0   |
| 유럽     | 0         | 0       | 0   |
| 아메리카   | 1,327,434 | 381,910 | 367 |
| 동남아시아  | 84,725    | 50,753  | 124 |
| 서태평양   | 120,436   | 58,357  | 205 |
| 합계     | 1,585,168 | 500,428 | 748 |

※ 유럽 수치는 본토 기준이며, 마요트·레위니옹·마데이라(포르투갈)의 223명(사망 0)은 미포함.



- '전 세계 뎅기열 발생 건수는 '24년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1,420만 건 이상의 뎅기열 사례가 보고되었고, 확진 750만건, 중증 사례는 52,000건 이상, 사망자는 1만명 이상 발생함. '23년에는 650만건 확진, 7만5천명의 사망자가 보고됨. '26년 상반기에는 '25년보다는 적은 규모를 보이고 있음<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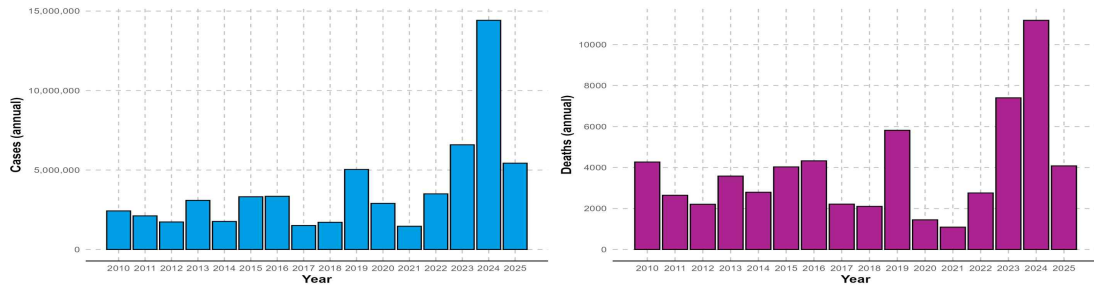


그림 2-2. '10년~'25년 전 세계 뎅기열 총 확진자수 및 사망자수 추이 (WHO, '26.7.23.)<sup>1)</sup>

- '24년 1월부터 '26년 6월까지 보고된 뎅기열 사례를 비교하면, 유럽 지역과 서태평양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24년에 가장 많은 수가 보고됨<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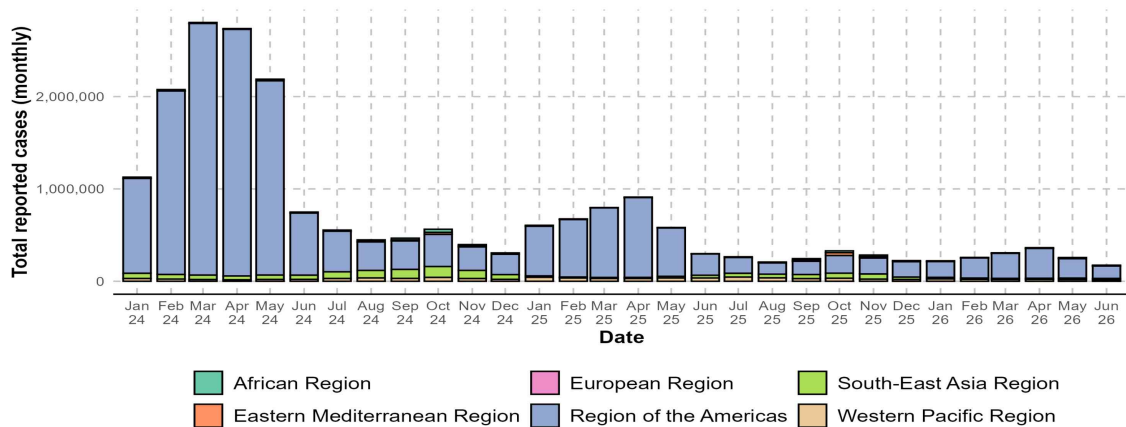


그림 2-3. '24년 1월~'26년 6월 WHO 권역별 월별 뎅기열 보고 추이 (WHO, '26.7.23.)<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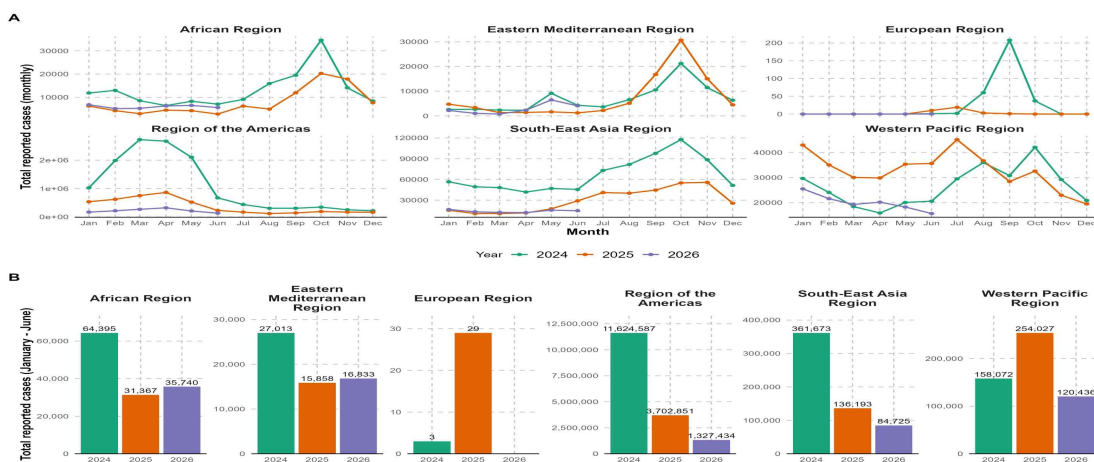


그림 2-4. '24년 1월~'26년 6월 전 세계 월별 뎅기열 총 확진자수 추이 (WHO, '26.7.23.)<sup>1)</sup>

- 전 세계적으로 '26년 보고 사례수는 '24년 유행 당시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대규모 발병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 3년 동안 발생한 사례 중 가장 큰 규모임<sup>1)</sup>
  - '26년 1월부터 6월까지 18개국(아프리카(6), 서태평양(5), 미주 지역(3), 동지중해·동남아시아(각각 2))의 누적 확진자수가 '24년 동기간보다 더 많음. 전년 대비 가장 많은 확진자 수를 보고한 국가는 캄보디아, 케냐, 이란 등임
- 국가별로는 브라질이 '26년 현재 가장 많은 확진 사례를 보고했는데 100만 건 이상의 사례를 보고했으며, 이 중 276,304건이 확진 판정을 받음. 그 다음으로 인도네시아(58,357건), 콜롬비아(54,438건) 순이었음<sup>1)</sup>

※ 다만 지역별 감시체계가 상이하여 권역 간 단순 비교에는 주의 필요

표 2-2. WHO 지역별 '26.1~6. Dengue 발생 상위 국가 (WHO, '26.7.23.)<sup>1)</sup>

| 국가    | 총 사례      | 10만 명당  | 확진      | 중증  | 사망  |
|-------|-----------|---------|---------|-----|-----|
| 브라질   | 1,064,958 | 498.6   | 276,304 | 519 | 246 |
| 인도네시아 | 58,357    | 21.3    | 58,357  | -   | 152 |
| 콜롬비아  | 54,438    | 101.9   | 37,909  | 561 | 37  |
| 볼리비아  | 50,778    | 403.6   | 562     | 443 | 1   |
| 가이아나  | 35,768    | 4,283.6 | 12,154  | 418 | 0   |
| 스리랑카  | 33,872    | 155.6   | -       | -   | 17  |
| 말레이시아 | 33,697    | 100.3   | -       | -   | 24  |
| 페루    | 33,207    | 96.0    | 24,901  | 143 | 35  |
| 멕시코   | 29,977    | 22.5    | 2,847   | 113 | 4   |
| 인도    | 22,938    | 1.6     | 22,938  | -   | 31  |

※ '-'는 미보고. 발생률(10만 명당)은 쿡제도(약 5,000명)·가이아나(약 4,200명)·브라질(500명) 순으로 높음

## 상황 평가

- 아프리카·동지중해·동남아시아·서태평양은 하반기에 유행 정점이 도래하므로 하반기 발생 확대 가능성이 있으며, 기후변화로 비정형 시기의 유행 발생 위험도 증가함
- WHO는 전 세계 아르보바이러스 이니셔티브(Global Arbovirus Initiative)를 통해 ▲매개체 감시·유충 서식지 관리 등 예방조치, ▲저전파기에도 사례 감시를 유지하는 조기탐지·대응, ▲진단·임상관리·매개체 관리 역량 강화, ▲지역사회 참여, ▲기후·환경 변화 대비, ▲자원 최적화를 지원함
- 국내 Dengue열은 모두 해외유입 사례로 매개 모기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바 없으나, 흰줄숲모기가 전국에 서식하여 유입 사례를 통한 국지적 전파 가능성에 대비가 필요함

- 급속한 도시화와 기후변화로 매개모기 서식에 유리한 환경이 확대되고, 국제 이동·교역 증가로 바이러스·모기·감염자의 국경 간 이동이 늘고 있음. 또한 다수 혈청형(DENV-1~4)의 동시 순환은 다른 혈청형 2차 감염에 따른 중증 Dengue열 위험을 높임<sup>1)</sup>
- 아프리카·동지중해·동남아시아·서태평양은 하반기에 유행 정점이 도래하므로 하반기 발생 확대 가능성이 있으며, 기후변화로 비정형 시기의 유행 발생 위험도 증가함<sup>1)</sup>

- WHO는 세계 아르보바이러스 이니셔티브(Global Arbovirus Initiative)를 통해 ▲매개체 감시·유충 서식지 관리 등 예방조치, ▲저전파기에도 사례 감시를 유지하는 조기탐지·대응, ▲진단·임상관리·매개체 관리 역량 강화, ▲지역사회 참여, ▲기후·환경 변화 대비, ▲자원 최적화를 지원함<sup>1)</sup>
- 국내 뎅기열 발생은 전부 해외유입 사례로 '25년 110명, '26년 31명(7.30. 기준)<sup>3)</sup>이 보고되었으며, 주요 유입 기원은 동남아시아(인도네시아·베트남·필리핀·태국 등)임. 유행지역 방문 시 모기 기피제 사용·긴 옷 착용 등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여행 후 발열·두통·근육통·발진 등 의심증상 발생 시 의료기관에 해외 여행력을 알리고 진료받을 것을 권고함<sup>2)</sup>

---

1) Weekly epidemiological record No.29(WHO, '26.7.24.)

2) 2026년 바이러스성 모기매개감염병 관리지침 (질병관리청, '26.3.12)

3) 감염병 통계 대시보드\_뎅기열 (감염병포털, '26.7.30.)

### 3. 선모충증, 아르헨티나 Trichinellosis in Argentina

#### 발생 상황

- '26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주 북서부 지역(Junín 및 Lincoln)에서 두 건의 선모충증 집단 발생이 확인되어 주 보건당국이 보건 경보를 발령함
  - 특히 '26년 남반구 겨울철(6~8월) 들어 해당 주에서만 124건의 확진 사례가 보고되었으며, 이는 '25년 동 기간(37건)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수치임. 두 개 집단 발생을 합한 환자수는 '26년 7월 24일 기준 55명 이상임
- '26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주 북서부 지역(Junín 및 Lincoln)에서 두 건의 선모충증 집단 발생이 확인되어 주 보건당국이 보건 경보를 발령함<sup>1)</sup>
  - 특히 '26년 남반구 겨울철(6~8월) 들어 해당 주에서만 124건의 확진 사례가 보고되었으며, 이는 '25년 동 기간(37건)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수치임<sup>2)</sup>
  - 부에노스아이레스 주 역학보고서는 현재 상황을 '풍토병 지역 내 발병 구역(outbreak zone)'으로 공식 분류했으며, 이번 증가가 통계적으로 예상되는 계절적 기준치를 상회하는 것으로 평가함<sup>2)</sup>
- 첫 번째 집단 감염은 후닌(Junín) 소재 제49교도소(Unidad Penitenciaria N°49)에서 발생함<sup>1)</sup>
  - 면회객이 반입한 수제 소시지를 섭취한 수용자 18명이 선모충증으로 진단되었으며, '26년 6월 16일 첫 증상 발생 이후 부에노스아이레스 교정청, 후닌시청 및 제3보건지역이 공동 대응을 실시함<sup>1)</sup>
  - 역학조사 결과, 해당 소시지는 헤네랄 로드리게스(General Rodríguez) 관할 국도 7호선 인근 노점에서 구입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검사 결과 다량의 선모충 유충이 검출됨. 현재까지 해당 소시지와 관련한 후닌 지역사회 내 추가 감염 사례는 확인되지 않음<sup>1)</sup>
- 두 번째 집단 감염은 링컨(Lincoln)시 마이푸 대로(avenida Maipú) 598번지 소재 정육점에서 판매된 육가공품과 관련하여 발생함<sup>1)2)3)</sup>
  - '26년 7월 11일 링컨시 식품안전국이 해당 정육점에서 압수한 가공육을 분석하여 선모충(*Trichinella spiralis*) 유충을 검출하였고, 7월 13일 정육점을 임시 폐쇄함<sup>2)3)</sup>
  - 역학조사 과정에서 원산지 증빙이 불충분한 돼지고기 및 육가공품 77kg을 압수하였으며, 해당 제품 검사 결과 선모충 유충이 검출됨. 해당 정육점은 폐쇄 조치되었으며, 업주는 공중보건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됨<sup>1)3)</sup>
  - '26년 7월 24일 기준 37명의 환자(링컨 34명, 레안드로 N. 알렘 3명)가 확인되었으며, 감염자 중에는 6세, 13세, 15세 소아가 포함됨<sup>3)</sup>
  - 링컨시 보건당국은 모든 감염 사례가 불법 도축 돼지고기를 사용해 건조 소시지·본디올라·베이컨 등 비가열 가공육을 제조·판매한 동일 정육점에서 비롯되었다고 확인함<sup>3)</sup>
  - 환자 대부분은 외래 치료 중이며, 초기 2~3명이 정맥 치료를 위해 입원함. 링컨 시립병원은 노출력이 확인된 주민에게 예방적 구충제를 투여함<sup>2)3)</sup>
- 이번 선모충증 발생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부에노스아이레스주 내 여러 지역에서 사례가 확인되거나 역학조사가 진행되는 양상을 보이며 최소 9개 지자체에 걸쳐 확산된 것으로 파악됨<sup>2)</sup>
  - 링컨시 외 지역인 마르티네스 데 호스(Martínez de Hoz) 및 엘 도라도(El Dorado, 레안드로 N. 알렘 관할)에서

추가 사례가 확인되었으며, 헤네랄 마다리아가(General Madariaga), 헤네랄 로드리게스(General Rodríguez), 푼타인디오(Punta Indio)에서는 집단 발생이 확인됨<sup>2)</sup>

- 헤네랄 귀도(General Guido), 아야쿠초(Ayacucho), 마이푸(Maipú), 후닌(Junín), 빌라리노(Villarino) 등 5개 지역에서도 의심 사례에 대한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며, 비공식 유통망을 통한 라벨 미표시 돼지고기 제품의 유통이 다지역 발생 양상의 가장 주요 원인으로 추정됨<sup>2)3)</sup>

## 상황 평가

- 아르헨티나 보건당국은 두 지역(Junín 및 Lincoln) 집단 발생 간 역학적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함. 다만, 두 지역의 사례 모두 라벨이 없어 산지 추적 및 위생 관리를 할 수 없는 돼지고기 가공품이 유통·섭취된 점을 공통 위험 요인으로 파악함
- 국내는 '14년 자라 고기 생식과 관련한 선모충증 집단 발생 이후 현재까지 추가 발생 사례가 보고된 바 없음('26.7.30. 기준). 선모충증 예방을 위해 원산지가 확인된 육류만 섭취하고, 선모충 유충은 염장·건조·훈연만으로 사멸되지 않으므로 육류를 중심부까지 70℃ 이상(분쇄육 71℃)으로 충분히 가열해 조리할 것을 당부함. 또한 생고기 취급 후에는 손과 조리기구를 철저히 세척하는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권고함
- 아르헨티나 보건당국은 두 지역(Junín 및 Lincoln) 집단 발생 간 역학적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함. 다만, 두 지역의 사례 모두 라벨이 없어 산지 추적 및 위생 관리를 할 수 없는 돼지고기 가공품(건조 소시지·본디올라·베이컨 등)이 유통·섭취된 점을 공통 위험 요인으로 파악함<sup>3)</sup>
- 7월 22일 기준 오염 제품을 공급한 양돈농장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미확인된 공급망으로 인해 추가 오염 제품 유통 가능성이 남아 있음<sup>2)</sup>
- 아르헨티나는 남반구 겨울철(6~8월)에 선모충증 발생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는 기온 저하에 따른 가정 제조 육가공품(저장육 및 소시지류)의 생산·섭취 증가와 관련이 있음<sup>2)4)</sup>
- 이번 발생은 계절적 특성과 일치하나, 발생 규모와 확산 속도를 고려할 때 비공식 돼지고기 제품 유통 규모가 기존 감시 및 관리 역량을 상회할 가능성을 시사함<sup>2)</sup>
- 한편 국립농식품위생품질청(Servicio Nacional de Sanidad y Calidad Agroalimentaria, SENASA)은 부에노스아이레스주 외에도 코르도바(Córdoba)·네우켄(Neuquén)·산루이스(San Luis)·추부트(Chubut)·산타크루즈(Santa Cruz) 등에서 사람 및 동물 발생을 보고하고 있어, 이번 사안은 특정 주에 국한되지 않은 전국적 위험 요인으로 평가됨<sup>4)</sup>
- 아르헨티나 국립농식품위생품질청은 선모충 검출을 위한 검사 체계 운영 및 오염 제품의 원산 추적 지원 등 식품 안전 관리를 수행하고 있음<sup>4)</sup>
- 국립농식품위생품질청은 산하 검사실 네트워크(DILAB)를 통해 트리키넬라(Trichinella spp.) 검출을 위한 인공소화법 검사를 실시하고 있음<sup>3)</sup>
- 또한 결의 1035/2024에 근거한 「선모충 감염예방·통제 계획」에 따라 전국 단위 역학감시·점검·교육을 수행하고 있으며, 사육농가 의무등록제(RENSPA, 결의 423/2014)와 ELISA 혈청검사를 병행 운영하고 있음<sup>3)4)</sup>

- 국내는 '14년 자라 고기 생식과 관련한 선모충증 집단 발생 이후 현재까지 추가 발생 사례가 보고된 바 없음('26.7.30. 기준)<sup>5)</sup>
  - 선모충증 예방을 위해 원산지가 확인된 육류만 섭취하고, 선모충 유충은 염장·건조·훈연만으로는 사멸되지 않으므로 육류를 중심부까지 충분히 가열해 조리할 것을 당부함<sup>6)</sup>
  - 돼지고기는 중심온도 70℃ 이상(분홍색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분쇄육은 71℃까지 가열하고, 통고기는 63℃ 도달 후 3분간 휴지할 것을 권고함. 두께 15cm 미만 돈육은 -15℃에서 20일간 냉동 시 유충이 사멸되나, 야생동물 고기는 냉동 저항성 종이 있어 냉동만으로는 불충분함<sup>4)6)</sup>
  - 또한 생고기 취급 후에는 손과 조리기구를 철저히 세척하는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권고함<sup>6)</sup>
  - 아르헨티나 등 발생국 방문 시 노점 및 비공식 유통망에서 판매되는 수제 육가공품(건조 소시지·본디올라·베이컨 등) 섭취를 자제하고, 귀국 후 발열·근육통·안면부종 등이 나타나면 의료기관을 방문해 여행력을 알리고 치료받을 것을 권고함<sup>3)</sup>



| 질병개요   | 선모충증                                                                                                                                                                                                                                                                                                                                                                                                                                                                                                                                                                                                                                                                            | 〈 Trichinella <sup>7)</sup> 〉 |
|--------|---------------------------------------------------------------------------------------------------------------------------------------------------------------------------------------------------------------------------------------------------------------------------------------------------------------------------------------------------------------------------------------------------------------------------------------------------------------------------------------------------------------------------------------------------------------------------------------------------------------------------------------------------------------------------------|-------------------------------|
| 정의     | · Trichinella(선모충)에 감염된 동물을 날 것 혹은 덜 익힌 채로 섭취한 후 발생한 감염 질환                                                                                                                                                                                                                                                                                                                                                                                                                                                                                                                                                                                                                      |                               |
| 미생물 종류 | · 기생충                                                                                                                                                                                                                                                                                                                                                                                                                                                                                                                                                                                                                                                                           |                               |
| 감염원    | · 돼지, 설치류, 말, 개, 곰, 여우, 자라, 멧돼지                                                                                                                                                                                                                                                                                                                                                                                                                                                                                                                                                                                                                                                 |                               |
| 전파경로   | · 선모충에 감염된 동물을 날 것 혹은 덜 익힌 채로 섭취                                                                                                                                                                                                                                                                                                                                                                                                                                                                                                                                                                                                                                                |                               |
| 발생지역   | · 전 세계에서 발생                                                                                                                                                                                                                                                                                                                                                                                                                                                                                                                                                                                                                                                                     |                               |
| 잠복기    | · 위장관기 1~2일, 근육기(전신증상) 2~8주                                                                                                                                                                                                                                                                                                                                                                                                                                                                                                                                                                                                                                                     |                               |
| 치명률    | · 약 0.4%                                                                                                                                                                                                                                                                                                                                                                                                                                                                                                                                                                                                                                                                        |                               |
| 진단     | · 근육 생검에서 유충 확인. 면역형광법 혹은 효소면역법 등의 혈청학적 진단<br>· PCR, PCR-RFLP                                                                                                                                                                                                                                                                                                                                                                                                                                                                                                                                                                                                                   |                               |
| 증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모충에 감염된 동물(주로 돼지)을 날로 혹은 덜 익힌 채로 섭취하여 감염되고 횡문근에 침입하는 선모충의 유충으로 인해 주로 전신질환과 합병증을 일으킴. 섭취한 육류에 선모충 수가 많지 않을 경우 경증으로 지나갈 수 있고, 대부분의 증상은 수개월 내에 사라짐. 증세는 3기로 나눌 수 있음</li> <li>· 점막 침입기: 감염 직후부터 1주 사이에 성충과 성충이 배출한 유충이 장점막을 자극하여 구역질, 구토, 복부경련, 복통, 설사 등이 일과성으로 나타남</li> <li>· 유충이행기: 감염 후 2~6주에 유충이 근육으로 침투하면서 증세가 나타남. 발열과 근육통, 호산구증가증, 유충 항원으로 인한 독작용 및 과민반응이 나타남. 심한 경우 심근, 폐, 중추신경계의 염증과 함께 합병증이 일어날 수 있으며, 이 시기에 사망할 수 있음</li> <li>· 유충피포기: 근육으로 이행한 유충은 감염 3주 후부터 정착하여 피포하기 시작함. 근육통과 근위축, 심근염, 전신부종, 쇼크, 발한, 불면증, 신경장애 및 호흡기 장애가 나타날 수 있음. 감염부위와 감염유충 수에 따라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음. 합병증으로 세균성 폐렴, 뇌 침범, 패색전, 심장마비 등이 알려져 있음</li> </ul> |                               |
| 치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ebendazole, albendazole 사용</li> <li>· 증상 경감을 위해 중증의 경우 스테로이드 병용할 수 있음</li> </ul>                                                                                                                                                                                                                                                                                                                                                                                                                                                                                                                                                      |                               |
| 예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축장에서 돼지 감염여부 조사, 돼지 또는 야생동물의 근육을 날 것으로 섭취하는 것을 삼감</li> <li>· 야생동물에 대한 철저한 검역과 유통국가에서의 반입 막음</li> <li>· 돼지고기 중심온도 70℃ 이상 가열(분쇄육 71℃, 통고기 63℃도달 후 3분 휴지), 염장·건조·훈연은 유충 사멸을 보장하지 못함</li> </ul>                                                                                                                                                                                                                                                                                                                                                                                                                                           |                               |

1) 부에노스아이레스 북서부 주에서 기생충 감염증(트리키넬라증) 경보 발령: 후닌 교도소에서 수감자 18명, 링컨 교도소에서 30명 이상 감염. Alerta por triquinosis en el noroeste bonaerense: 18 presos afectados en Junín y más de 30 casos en Lincoln. (TN, '26.7.24.)

2) Trichinellosis focal cluster of 25 cases in Lincoln, Buenos Aires Province, Argentina, linked to a single butcher shop (Beacon, '26.7.22.)

3) 부에노스아이레스 북서부 지역에서 기생충 감염증(트리키넬라증) 집단 발생 두 건: 이미 50명 이상이 감염되었으며, 링컨에 있는 정육점 한 곳이 폐쇄되었습니다. Dos brotes de triquinosis en el noroeste bonaerense: Ya hay más de 50 afectados y una carnicería clausurada en Lincoln (bichosdecampo, '26.7.24.)

4) 기생충증 발병 사례 보고에 따라 예방 조치 강화. Refuerzo de las medidas de prevención ante el registro de casos de triquinosis (아르헨티나 정부 공식 웹사이트, '26.6.16.)

5) 한국에서 날것으로 먹은 자라 고기로 인한 기생충증 집단 발생. An Outbreak of Trichinellosis by Consumption of Raw Soft-Shelled Turtle Meat in Korea (대한기생충학회지, Korean J Parasitol. 2015;53(2):219-222)

6) About Trichinellosis (美CDC, '24.9.10. 기준)

7) 국내 유입가능 해외감염병 신규 관리지침 (질병관리본부, '18.1.10.)